

日 후쿠오카에 전남 농수산물식품 상설판매장 개장

도쿄·신주쿠 이어 일본 내 3번째 개설 주목 규슈 지역 진출 교두보·수출 전진기지 기대

전남 농수산물식품 상설 판매장이 일본 후쿠오카에 문을 열었다. 도쿄와 신주쿠에 이어 일본 내 3번째 상설 판매장으로 전남 농수산식품의 규슈 지역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도는 21일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일본 규슈 최대 도시인 후쿠오카에 일본 내 3번째 우수 농수산물식품 상설 판매장을 개설, 규슈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장한 상설 판매장은 후쿠오카시 하카타구에 위치한 예스마트(Yes mart) 후쿠오카점에 자리잡았다. 예스마트 후쿠오카점은 일본 내 대표적 한국식품 전문 유통기업인 ㈜영산이 직접 운영하는 한국식품 유통매장이다. 총 면적 1천150㎡ 중 전남 상설 판매장은 33㎡ 규모로 김치, 젓갈, 어묵, 주류, 해조류 등 전남의 대표 농수산물 40여개 제품이 입점했다.

(㈜영산은 순천 출신 제일동포 기업가인 장영식 회장이 일본 내 식품·가전·화학품 유통 및 면세점 등을 운영하는 유통 전문기업이다. 특히 ㈜영산이 직접 운영하는 한국식품 전문 마켓 예스마트의 14개 직영매장과 12개 유통매장을 통해 2021년 180만 달러 상당의 전남식품을 포함, 총 600만 달러의 한국식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다. 개장식에는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

관과 장영식 대표, 임현근 후쿠오카총영사관 영사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와 식품 유통 바이어가 대거 참석해 지자체 전용 상설 판매장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장영식 대표는 “한국식품의 1차적인 목표 고객은 한인동포들인데, 그들 사이에서 ‘전라도 음식’ 하면 기본적으로 많이 신뢰를 하는 분위기”라며 “전남도라는 이름을 건 매장인 만큼 고객에 신뢰하는 좋은 제품을 계속 늘려가면 매장 전체의 매출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전남 농수산식품의 전 세계 두 번째 수출국인 일본에 ‘전남도’ 브랜드로 도쿄와 신주쿠 지역에 이어 세 번째 상설 판매장을 개설하게 됐다”며 “현지 상설 판매장을 입맛이 까다롭고 품질에 대한 요구가 높은 일본 소비자에게 ‘전남도 우수 농수산물’을 홍보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전남 북부권 4개 지자체 현안 해결 ‘맞손’

상생발전협의회 실무협의 정례회 무등산 일원 관광명소화 공동대응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가 민선 8기에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실무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 북구는 21일 “최근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가 간담회를 열어 ‘무등산 일원 관광 명소화 추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병노 담양군수, 김한중 장성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문인 북구청장이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상반기 회장으로 추대됐다.

단체장들은 ▲소통과 상생 ▲공감과 협력 ▲새로운 도약 ▲같이의 가치를 기치로 공동 대응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주요 논의·협의 사항은 ▲‘무등산 일원 관광 명소화 추진’을 위한 해당 지자체 프로그램 연계 ▲실무협의체 회의 정례화 ▲관련 사업 협업 발굴 등이다.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열린 민선 8기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첫 간담회에 참석한 이병노 담양군수(왼쪽부터), 김한중 장성군수,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합의를 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단체장들은 해당 지자체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상반기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이기도 하지만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 및 민선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는 2019년 1월, 광주 북구·광산구, 담양, 장성 등 4개 지자체가 뜻을 모아

발족했으며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장성 KTX 진입,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철만3지구 개발사업 관련 행정구역 조정 등 굵직한 안건 등을 논의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인재영기자

광주시, 지능형전력시스템 사업 고도화 기업설명회 연다

내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지원 프로그램·기술 동향 소개

광주시는 21일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인 지능형전력시스템 사업 고도화와 기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능형전력시스템 기업지원 사업설명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1층에서 진행된다. 광주지역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프로그램과 최신 기술 동향 등을 소개한다.

지능형전력시스템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한전전력망에 연결해 전력피크 저감, 전력거래, 수요관리 등 전기 생산·소비·공급을 양방향·실시간으로 유통하는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이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광주시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86억 원을 들여 지능형전력시스템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기술 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

기술원 등에 지능형전력시스템 관련 장비 15종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3개 기관 연구 인력의 연계 협력을 통한 기술지원, 제품개발을 위한 시험·평가·시제품 지원, 관련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권대혁 에너지산업과장은 “지역 연구 역량을 활용한 지능형 전력시스템의 사업 고도화와 기업 지원을 통해 광주 지역 에너지기업들이 에너지 신산업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道, 추석 대목 축산물 안정 공급 총력

민·관 합동감시반 운영, 도축장 연장 등 특별 관리

전남도는 21일 “추석 성수기에 전국 소비자에게 안전한 전남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2일부터 명절 전까지 ‘축산물 특별 관리주간’으로 정해 민·관 합동감시반 운영 및 도축장 운영시간 연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 기간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감시반을 편성해 축산물 최초 생산소·패치 도축장 10개소와 선물용과 차례용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체 128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청결 상태, 원료육 취급 상태, 자가 품질검사 상황,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선물용과 차례용 축산물 수요 증가 예상됨에 따라 평일 도축장 개장 시간을 오전 5시에서 오전 4시로 1시간 앞당긴다.

전남도는 축산물 특별 관리주간 동안 시·군과 함께 축산물 안전 신고 상황실도 운영한다.

전도현 동물방역과장은 “정정 전남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신선하고 안전하다”며 “추석에 전국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천연기념물 ‘팔색조’ 2마리 자연 회귀

市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이달 구조해 돌봄·치료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21일 “이달 초 어미를 잃고 미아 상태로 시민들에게 발견돼 구조한 ‘팔색조’(사진) 2마리가 지난 19일 최초 구조한 지역인 무등산 자락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연으로 돌려보냈다.

팔색조는 천연기념물 204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된 여름 빛깔의 비단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색을 가진 회귀 여름철새다.

이번에 자연 회귀한 팔색조는 8월 초 동구 학동과 서석동에서 각 한 마리씩, 미아 상태로 건물 주변에서 구조됐으며 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보살핌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해 적기에 본래 서식지로 돌아가게 됐다.

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2019년 개소한 이후 매년 구조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3년7개월여 만에 부상한 야생동물 118종 1천985마리를 구조·치료했으며 지금까지 총 631마리를 자

구조한 동물 중에는 수달, 하늘다람쥐, 수리부엉이, 삿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물 20종 253마리도 다수 포함돼 있다.

야생동물구조치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광주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환경-보건환경검사-검사 조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병철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소중한 구조 동물들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며 “시민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생태환경 도시 광주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197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사랑방

‘봉심정’ 활용 방안 토론회

8월 26일(금) 오후 1시30분,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

‘197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사랑방 봉심정 어떻게 하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1969년부터 광주지역 민주 인사들이 모여 공부하고 토론했던 ‘봉심정’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특히 봉심정에서 활동했던 주요 인사들이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70년대 광주의 민주화 운동사를 정리하고 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과의 연계 고리를 찾아 그 역사를 반추하고자 합니다. 광주매일TV를 통해 생중계될 이번 토론회에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 197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사랑방 ‘봉심정’ 어떻게 하나?
- 발 제 :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
- 토 론 : - 좌 장 : 김덕진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곽성용 (사)전남대학교민주기념사업회 사무처장
 - ▲박종찬 광주대학교 교수
 - ▲오영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의원
 - ▲윤건열 광주광역시 민주인권과장
 - ▲전용호 5·18진상조사위원회 전문위원

| 주최 | 윤영덕 국회의원 | 주관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 후원 | 광주광역시남구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